

학교에서 발생한 상습·반복적 성범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bitual or Repeated Sexual Offenses in School

박미랑*, 박지선**, 손현희*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Mi-Rang Park(parkmi4@gmail.com)*, Ji-Sun Park(rmpjcr@hanmail.net)**,
Hyun-Hee Sohn(jhhh1@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학교 성범죄 | 상습·반복 성범죄 | 일회성 성범죄 | 아동 성범죄 | 교직원 성범죄 |

Abstract

Based on the sexual offenses committed in school,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habitual/repeated sexual offenses and one-off sexual offenses in terms of offender characteristics, victim characteristics, and offense characteristics. We examined a total of 218 sexual offense cases committed in school. As a result,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e, job, and residential area between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ders in school. In addition, notabl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se cases in the age and alcohol use of the victim. Moreover,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ses in school differed significantly by offense planning, method of approaching the victim, type of sexual behavior, and victim resistance. Furthermore,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es and identified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lasting of the sexual offense in school. Finally, we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 keyword : | Sexual Offense in School | Habitual/Repeated Sexual Offense | One-off Sexual Offense | Child Sexual Abuse | Sexual Offense by School Staff |

I. 서론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강력 범죄 연구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2]. 그러나 특별보호장소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3]. 학교는 아동·청소년에 있어 가정과 더불어 핵심이 되는 공간이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그만큼 안전의 문제가 최우선의 과제인 장소라 할 수 있다.

특히 4대 강력 범죄(흉악)인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범죄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한 건수는 총 449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성폭력 범죄가 총 440건이었다[1].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 학교 발생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후유증을 유발한다[4-6].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위험성이 있다[7]. 이러한 경우,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어 지속되기도 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발생 성범죄 가운데 반복성을 갖는 사건의 특성을 조사하여, 학교 발생 성범죄 예방 및 발생 장기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일회성 범죄와 상습적이거나 반복, 지속된 사건을 분류하여 그 차이점을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변인에 대해 조사하여 범죄 예방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성범죄

1.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

국외의 경우,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9]. 미국 여자 대학생 협회[10]의 조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 가운데 39%, 남자 청소년 가운데 32%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식 보고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학교 내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 및 학교 출석률, 학업 수행, 교우 관계 등 폭넓은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3].

학교 발생 성범죄 관련, 가해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11][14]. 범죄 유형을 보면, 강간 보다는 강제추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2]. 범행 시 타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11][14]. 특히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피해자에게 처음 접촉을 시도할 때 폭행 등 물리적 사용보다는 대부분 지위를 이용하여 접근하였으며[15], 장난감이나 선물, 돈 등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관심이나 애정을 보여 주어 피해자가 범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16].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증거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아동이 직접 주변에 이야기 하더라도 신고나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가 많다[17]. 특히 교내에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에서는 학교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해 범죄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도 한다[18].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적절히 대처하기는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19]. 또한 성범죄 발생을 학교 관리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하는데[20], 이는 성범죄에 취약한 환경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향후 재발의 위험을 남기기도 한다.

학교 발생 성범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해자들이 잠재적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19]. 학교 내 성범죄의 상당수가 교사나 교장 등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의해 발생한다[21][22]. 일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학교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9],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이용하여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등 더 취약한 집단의 아동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11]. 따라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때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장기화되기도 한다[9].

2. 상습·반복성을 띤 성범죄의 영향

성폭력 피해 지속 기간에 따른 피해자의 후유증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아동기에 지속적 성적 학대를 받았던 여성 대상 연구에 따르면, 피해 지속 기간이 길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의 강도가 더 심각했으며, 이후 삶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3][24]. 또한 일회성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보다 지속적 피해를 입은 아동이 훨씬 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및 신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우울감과 자기 파괴적 성향 또한 더 높았다[25].

국내 연구에서는 성범죄 피해 아동을 일회성 범죄 피해를 입은 '단일 피해' 집단과 장기적 피해를 입은 '지속 피해'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지속 피해 집단이 단일 피해 집단에 비해 우울 지표('인지적 비판', '자기 패배적 성향', '정서적 혼란') 및 대응 손상 지표('사회적 관계에서의 무기력과 대응기술의 제한')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26]. 또한, 단일 피해 집단에 비해 지속 피해 집단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26].

성범죄 피해 아동의 피해 기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27], 우선 범행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범행 당시 저항 시도를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아동이 범죄 발생에 대해 자기 비난을 더 많이 하였다[27]. 즉, 범행에 대한 책

임을 피해자 스스로에게 돌리는 귀인 양식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범죄는, 아동 스스로가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나아가 범죄 발생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게 하여 더욱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28].

이처럼 학교 내 발생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대인 관계, 학업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13], 범행 사실 발견이 어렵고 때로 은폐가 이루어져 범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9]. 국내에서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생 성범죄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여전히 극도로 희소하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한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및 범행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일회성 범죄와 비교하여, 학교 발생 성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 범죄 발생 장기화 방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성범죄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내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교 발생 성범죄 중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 218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범죄 사건 판결문 수집은 검찰 및 법원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고, 대상 판결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판결이 종료된 사건들이다. 판결문 기술 내용 중 가해자 및 피해자의 배경 특성, 가해자 전과 기록, 범죄 발생 특성, 피해 내용 등을 코딩하여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학교 발생 성범죄 중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교 성범죄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범죄의 장기 지속 여부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 배경 특성, 범행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피해자 저항 여부 등의 범행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발생 성범죄의 반복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의 장기 지속 여부에 따른 학교 성범죄에 있어서의 차이를 T-검정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지속 기간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총 218건 가운데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80건(36.7%),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가 138건(63.3%)이었다. 특히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에는 1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부터 15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1].

학교 발생 성범죄 총 218건 중 범죄 발생 학교 등급으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수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학교 내 장소 분포를 보면, 218건 중 운동장이 약 3분의 1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교실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남성도 5%가량 포함되어 있었다. 가해자 연령은 최소 13세에서 최대 77세까지 평균 52.80세(표준 편차 = 15.39)였고, 피해자 연령은 최소 6세에서 최대 18세까지 평균 11.12세(표준 편차 = 3.52)

로 나타났다.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직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서로 모르는 관계(초면)가 두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가 피해자 학교의 직원일 경우(N = 171)를 보다 자세히 보면, 교장이나 교감, 교사였던 경우가 85건(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움터 지킴이가 62건(36.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가 15건(8.8%), 경비원이 4건(2.3%), 행정직 직원이 4건(2.3%), 기타 1건(0.6%)의 순이었다.

표 1. 연구 대상 빈도 분석

범행 지속 기간(개월)	218	100.0%	가해자성별	218	100.0%
일회성	80	36.7%	남자	218	100.0%
1	54	24.8%	피해자성별	218	100.0%
2	9	4.1%	남자	12	5.5%
3	23	10.6%	여자	206	94.5%
4	9	4.1%	가-피 관계	218	100.0%
5	2	0.9%	학교직원	171	78.4%
6	3	1.4%	초면	24	11.0%
10	2	0.9%	피해자 지인	11	5.0%
15	36	16.5%	채팅사이트	7	3.2%
학교 내 장소	218	100.0%	단순 지인	3	1.4%
교실	39	17.9%	이웃	2	0.9%
교무실	9	4.1%	피해자나이	218	100.0%
교장실	7	3.2%	6세	10	4.6%
행정실	3	1.4%	7세	45	20.6%
운동장	69	31.7%	8세	19	8.7%
기숙사	13	6.0%	9세	5	2.3%
화장실	5	2.3%	10세	2	0.9%
체육관	18	8.3%	11세	38	17.4%
복도, 계단 등 통로	17	7.8%	12세	31	14.2%
기타	38	17.4%	13세	14	6.4%
범죄발생 학교	218	100.0%	14세	12	5.5%
초등학교	161	73.9%	15세	14	6.4%
중학교	29	13.3%	16세	5	2.3%
고등학교	27	12.4%	17세	11	5.0%
특수학교	1	0.5%	18세	12	5.5%

2. 가·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우선 가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에 있어, 학교 발생 성범죄의 지속성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표 2]. 학교에서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이 일회성 범죄자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반면, 피해자 연령에 있어서는 일회성 보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유의미하게 어린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지속 발생 성범죄의 경우 평균 범행 횟수가 무려 14회 정도로 나타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었다.

표 2. 가해자 및 피해자 연령에서의 차이

특성	지속성 여부	N	M	SD	t	p
가해자 나이	일회성	80	47.14	15.29	4.302	.000
	지속성	138	56.09	14.52		
피해자 나이	일회성	80	12.11	3.28	3.226	.001
	지속성	138	10.55	3.54		
범행 횟수	일회성	80	1.00	.00	7.998	.000
	지속성	138	14.15	14.69		

이번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표 3]. 그 결과, 학교에서 동일 피해자 대상 성범죄를 장기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은 대다수 직업이 없었던 반면, 일회성 성범죄자들은 5분의 1정도가 직업이 없었다. 가해자가 학교직원이었다는 경우는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범죄자 대부분이 해당되어, 일회성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일회성 성범죄자들은 4분의 1정도가 범죄 발생 학교 근처에서 살았던 반면, 지속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은 오히려 이에 거의 해당되지 않았다.

표 3.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변인	일회성	지속성	χ^2	Φ
가해자 직업 있음	64 (80.0%)	127 (92.0%)	6.753 **	.176
가해자가 학교직원	48 (60.0%)	123 (89.1%)	25.411 ***	.341
가해자 거주지 학교근처	20 (25.0%)	12 (8.7%)	10.749 **	.222
피해자가 범죄 발생 학교 학생	58 (72.5%)	130 (94.2%)	20.099 ***	.304
피해자 학교일과 중 혼자일 때	33 (41.3%)	101 (73.2%)	21.811 ***	.316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범죄발생 학교 학생이었고, 이 비율은 일회성 피해자들 보다 많았다. 또한 학교에서 일과 중 혼자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일회성 보다 장기 성범죄 피해자들이 훨씬 많았다.

3. 학교 성범죄 지속성과 범행 특성

이번에는 범행 특성에서 지속성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 4]. 우선 계획적 범행은 일회성 보다 지속 발생 성범죄의 경우 훨씬 많았다. 또한, 피해자 유인 시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는 일회성 성범죄보다 장기 지속 성범죄가 훨씬 더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계위력의 유형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회성 성범죄는 물리적 유형의 비율이 더 많았던 반면, 장기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언어적 유형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많았다.

표 4. 범행 특성에서의 차이

변인	일회성	지속성	χ^2	Φ
계획적 범행	41 (53.9%)	109 (79.0%)	14.657 ***	.262
유인방법 - 위계위력 사용	36 (45.0%)	86 (62.3%)	6.164 *	.168
위계위력인 경우 - 물리적 유형	18 (22.5%)	17 (12.3%)	3.895 *	.134
위계위력인 경우 - 언어적 유형	18 (22.5%)	69 (50.0%)	15.970 ***	.271
피해자 성기접촉	26 (32.5%)	70 (50.7%)	6.825 **	.177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강제추행)	63 (78.8%)	83 (60.1%)	7.925 **	.191
피해자 저항 못함	67 (83.8%)	131 (94.9%)	7.593 **	.187

* $p < .05$, ** $p < .01$, *** $p < .001$

범행 중 성적 행동을 보면,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한 경우는 장기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서 유의미하게 많았으나, 성기 이외 강제추행은 일회성 성범죄에서 훨씬 더 많았다. 또한 장기 발생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을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일회성 성범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4. 학교 성범죄 발생 지속기간에 기여하는 변인

이번에는 지속 발생 138건의 성범죄를 대상으로,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표 5]. 이를 위해 성범죄 지속기간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전 분석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범행특성 변인 중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견된 일부 변인들(가해자 나이 등)을 제외한 8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전 다중공선성 분석을 재차 수행한 바, 분산팽창 지수(VIF) 값이 1.269(피해자 성별)부터 4.938(범죄발생장소 - 운동장)으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학교 성범죄 발생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B	S.E.	β	t
상수	-4.307	2.502		-1.722
가해자 - 배움터지킴이	2.701	.988	.230	2.733**
피해자 성별 - 여자	6.051	1.362	.212	4.443***
피해자 학교일과 중 혼자 있을 때	1.579	.706	.120	2.235*
범죄발생장소 - 운동장	.552	.229	.227	2.410*
계획적 범행	-2.218	.749	-.156	-2.963**
위계위력인 경우 - 언 어적 유형	-.476	.400	-.082	-1.191
피해자 성기접촉	1.920	.838	.165	2.292*
성기 이외 성적접촉(강 제추행)	-6.720	.599	-.566	-11.21***

F = 53.290, R² = .768, N = 138
* p<.05, ** p<.01, *** p<.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선 가해자 및 피해자의 배경 특성 관련 가해자가 학교 배움터지킴이인 경우 학교 발생 성범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가 남자보다는 여자일수록, 학교일과 중 혼자 있을수록 장기간 지속되었다. 한편 범죄 발생 면에서, 다른 장소보다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할 경우 성범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계획적 범행은 일회성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서 더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138건의 성범죄만을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행이 계획적인 경우 지속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는 가해자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에 발각되지 않은 채 성범죄를 상습·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차츰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들고 외부 시선에 둔감해지면서, 점차 치밀한 계획을 할 필요도 없이 범행에 만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결과는 범행 계획성 변수의 경우 범죄 지속기간과 상호적(reciprocal)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시사하는 바, 인과관

계 측면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범죄에 언어적 유형의 위계위력이 사용된 것은 학교 성범죄 지속기간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는 추행은 학교 성범죄의 지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기 이외의 강제추행은 학교 성범죄의 지속기간에 역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선행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주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였다[7][8][11]. 본 연구 결과, 일회성 성범죄 피해자보다 장기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훨씬 어렸으며, 학교 일과 중 혼자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특히 아동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드러낸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일회성 성범죄에 비해 장기 발생 성범죄는 계획적 범행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타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우선 학교 발생 성범죄, 그 중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범죄가 공식 통계상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1][12]. 또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신고가 되더라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발생 성범죄 예방 및 장기화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CCTV가 없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실질적 노력과 함께, 이러한 장소에 아동이 일과 중이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입학 당시를 비롯, 학기 초 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 발생 시 아동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학교에서 동일 피해자 대상 성범죄를 장기적으로 저지른 범피자들 대부분이 학교직원이었으며, 상당수가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력 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접근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확장한다[9][15][16]. 이는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면서 악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학교 발생 성범죄 장기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며, 교내의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의 역할을 하는 학생보호 인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3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8세 남성인 배움터지킴이가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해 입건되는 일이 있었고, 2012년 창원에서 66세 남성인 배움터지킴이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1-3학년 아동 9명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운동장, 숙직실 등의 장소에서 총 55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창원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먼저 알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기준 및 채용, 학교내 직무 및 권한 등에 보다 엄격한 감시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촉구한다. 또한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실질적 방지 대책으로서 배움터지킴이가 저지른 성범죄 적발 시 가중처벌의 의무화 및 신상공개 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성범죄 피해가 장기화될수록 피해 아동이 저항 시도를 더 적게 하고, 범죄 발생에 대해 자기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연구에서도 장기 발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 당시 저항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볼 때, 이는 장기 발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다 심한 자책과 낮은 자존감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드러난 장기 발생 성범죄의 취약한 피해자 선택 및 신뢰 관계를 이용한 피해자 유인 방법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발생에 있어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치료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2. 한계점 및 미래 연구

본 연구는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학교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11][12].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상당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단일 피해 집단과 지속 피해 집단 아동들을 비교한 연구에서[26], 지속 피해 집단의 경우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가 단일 피해 집단보다 훨씬 많았으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비율 또한 더 높았다. 본 연구에는 피해자의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해당 변인을 포함하여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기화에 있어, 피해 아동의 가정 및 양육 환경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초래한다[5][6][29].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증상 및 후유증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피해자 치료에 보다 효과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 학교 발생 성범죄에 있어 지속 기간에 따라 피해자가 나타내는 증상의 내용 및 정도의 차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1]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2015.
- [2] 권희경, 장재홍,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제8권, 제1호, pp.35-47, 2003.
- [3] 박미랑, 박지선, 최정호,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제6권, 제3호, pp.179-195, 2015.
- [4] 김정규, 김중술, “아동기 성학대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4호, pp.747-769, 2000.
- [5] D. Finkelhor and J. Dziuba-Leatherman, “Victimizat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Vol.49, pp.173-183, 1994.
- [6] K. A. Kendall-Tackett, L. M. Williams, and D. Finkelhor,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113, pp.164-180, 1993.
- [7] N. D. Kellogg and R. L. Huston, “Unwanted sexual experiences in adolescents: Patterns of disclosure,” *Clinical Pediatrics*, Vol.34, pp.306-312, 1995.
- [8] D. W. Smith, E. J. Letourneau, and B. E. Saunders, “Delay in disclosure of childhood rape: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Child Abuse & Neglect*, Vol.24, pp.273-287, 2000.
- [9] H. M. Moulden, P. Firestone, D. A. Kingston, and A. F. Wexler, “A description of sexual offending committed by Canadian teacher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Vol.19, pp.403-418, 2010.
- [10]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AUW), *Hostile hallways: Bullying, teasing, and sexual harassment in school*.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2001.
- [11] B. Gallagher, “The abuse of children in public care,” *Child Abuse Review*, Vol.8, pp.357-365, 1999.
- [12] A. M. Young, M. Grey, and C. J. Boyd, “Adolescent’s experiences of sexual assault by Peers: prevalence and nature of victimization occurring within and outside of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8, pp.1072-1083, 2009.
- [13] J. Duffy, S. Wareham, and M. Walsh,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high school students of having been sexually harassed,” *Sex Roles*, Vol.50, pp.811-821, 2004.
- [14] G. Timmerman, “A comparison between unwanted sexual behavior by teachers and by peers i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1, No.5, pp.397-404, 2002.
- [15] K. Weiss, “Authority as coercion: When authority figures abuse their positions to perpetrate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Vol.11, pp.27-51, 2002.
- [16] B. Leclerc, J. Proulx, and A. McKibben, “Modus operandi of sexual offenders working or doing voluntary work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Vol.11, pp.187-195, 2005.
- [17] R. Dawson, *The abuse of children in foster care: Summary Report*. Ontario: Ontario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of Oxford County, 1983.
- [18] B. Gallagher, *Grappling with smoke: Investigating and managing organised abuse - A good practice guide*. London: NSPCC, 1998.
- [19] J. Sullivan and A. Beech, “Professional perpetrators,” *Child Abuse Review*, Vol.11, pp.153-167, 2002.
- [20] H. Westcott, *Institutional abuse of children - From research to policy: A review*, NSPCC: London, 1991.
- [21] B. Gallagher, “The extent and nature of known cases of institutional child sexual abus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30, pp.795-817, 2000.

[22] G. Timmerman, "Sexual harassment of adolescents perpetrated by teachers and by peers: An exploration of the dynamics of power, culture, and gender in secondary schools," *Sex Roles*, Vol.48, pp.231-244, 2003.

[23] B. Renck and G. Rahm, "Sense of coherence in women with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4, pp.127-133, 2005.

[24] N. Rodriguez, S. W. Ryan, A. B. Rowan, and D. W. Fo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clinical sample of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Vol.20, No.10, pp.943-952, 1996.

[25] J. Waterman and R. Lusk, "Psychological testing in evaluation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Vol.17, pp.145-159, 1993.

[26] 김태경, 최지영, 임자영, 윤소미, 신의진, "성폭력 피해 아동의 로샤 반응 특성: 로샤 검사가 성폭력 피해의 증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3호, pp.765-780, 2006.

[27] J. A. Quas, G. S. Goodman, and D. Jones, "Predictors of attributions of self-blame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sexu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4, No.5, pp.723-736, 2003.

[28] F. E. Mennen, "Evaluation of risk factors in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32, pp.934-939, 1993.

[29] 권희경, 박경,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 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3호, pp.15-33, 2003.

저자 소개

박 미 랑(Mi-Rang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 2005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형사사법학 석사)
- 2009년 5월 : University of Florida(범죄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양형, 범죄예방, 형사정책, CPTED

박 지 선(Ji-Su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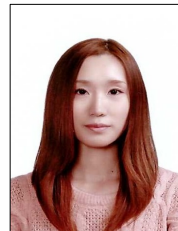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 영어교육과-심리학과(복수전공-문학사)
- 2003년 12월 : University of Liverpool(수사심리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 심리학과(심리학 석사)
- 2009년 2월 :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심리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살인, 성범죄, 프로파일링

손 현 희(Hyun-Hee Sohn)

준회원



- 2016년 3월 ~ 현재 :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성범죄, 청소년범죄